

# 광주시체육회, 양궁·배드민턴·수구팀 창단 추진

### 선수 증원·지변 확대 등 통해 엘리트체육 활력 불어넣기 대학·실업팀 창단 본격화 여자핸드볼·유도 발전도 모색

광주시체육회가 양궁·배드민턴·수구팀 창단을 추진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 선수단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 및 실업팀 창단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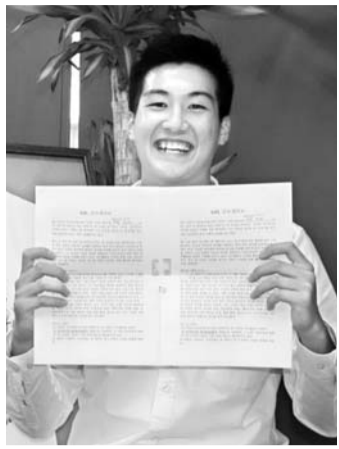
시체육회는 전국체전 고득점 종목, 개인 입상이 가능한 우수선수 영입, 지역 특색, 종목의 다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팀 창단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양궁과 배드민턴 팀 창단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해당 종목단체와 함께 관계 기관을 방문했다. 비인기 종목인 수구팀 창단을 위해서도 관계 대학을 방문해 창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긴밀히 논의했다.  
시체육회는 대학·일반부 선수 증원과 지변 확대, 연계육성 강화를 위해 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창단업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대학팀은 30개팀, 실업팀은 지자체, 공사 등 14

개 팀이 있다. 광주의 대학·실업팀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시체육회는 여자핸드볼팀과 여자유도팀에 대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창준 회장은 지난달 20일과 25일 각각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 공사를 잇따라 방문해 예산 지원,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여자핸드볼팀은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오세일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보강해 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창단 이래 첫 4승을 기록해 6위로 리그를 마감했다. 팀의 맡은이인 강경민은 MVP, 득점상, BEST

7 등 3관왕에 올랐다.  
여자유도팀은 지난해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 창단 7년 만에 단체전 우승을 일궈 냈고, 선수 5명 중 3명을 국가대표로 배출했다.  
김창준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체육계 분위기가 침체돼 있지만 팀 창단에 박차를 가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해 몰심양면 지원하겠다"며 "현재로서 전국체전 개최가 불투명하지만 활발한 팀 창단, 우수선수 영입 등으로 광주체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원주 DB, 프로농구 사상 최초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영입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2020-2021시즌 일본인 선수 나카무라 다이치(일본·사진)를 계약 기간 1년, 보수 총액 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3세에 키 190cm인 가드 나카무라는 일본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바 있다. 지난 시즌 일본 프로농구 교토에서 41경기에 출전, 평균 6.3점에 2.1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나카무라는 DB 구단을 통해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한국 프로농구에 진출하는 첫 번째 선수가 돼 영광"이라며 "저의 꿈이었던 이삼범 감독님 밑에서 농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스승님께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겠다"며 "한일 농구 교류에 긍정적인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BL은 지난달 일본프로농구 B리그를 대상으로 아시아 쿼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일본 선수(귀화·이중국적·혼혈 선수 제외) 1명을 영입할 수 있게 됐고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DB의 나카무라다.  
나카무라는 후쿠오카 오호리고등학교 시절 이상범 DB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인연으로 DB 유니폼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 전남도체육회 올 상반기 9개 사업 예산 34억 확보

전남도체육회는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9개 사업 예산으로 34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 3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7억1천700만원, 도내 31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지방 체육진흥사업비 7억6300만원 등이다.  
또 9개 시군 12명을 배정받은 체육 청년 첫걸음 지원 사업 1억44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7개 시군 12개 종목에 2억3000여만원을 확보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으로는 17개 종목 25개 초·중·고교에 2억1000만원을, 청소년 스포츠안전캠프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목포과학대와 장흥군체육회의 스포츠클럽이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 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체육인들과 사무처 행정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체육전문가들 싱크탱크 '광주체육 희망포럼' 출범

### 지역체육 발전 방안 등 정책 제안

광주지역 체육전문가들이 싱크탱크를 꾸렸다.  
광주지역 대학 교수, 시교육청, 전문 체육지도자, 광주·전남 태권회, 체육 총동맹회 등 12개 단체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광주체육 희망포럼'이 지난 11일 발족했다. <사진>  
이날 포럼발족 준비모임에는 현직 대학교수, 전문체육지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윤운남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이동우 교수, 광주·전남 태권회 김도형 회장 등 3명이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조선대 체육대학 김민철 교수가 사무총장, 전남대 체육교육학과 김대열 교수가 사무부총장으로 선임됐다.  
광주체육 희망포럼은 광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학술세미나-전문가초청 포럼 개최,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전문체육선수들의 권익보호, 학교체육 활성화를 모색한다.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도 제안할 방침이다.  
광주체육 희망포럼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발전, 엘리트 선수들의 선순환 훈련환경조성, 광주체육발전 위한 현안과제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체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체육인들과 폭넓게 연계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체육포럼으로 자리를 확립하도록 이룰 계획이다.  
광주 지역을 빛낸 선수, 지도자, 행정가들을 발굴, 올해부터 광주체육상도 시상한다.  
광주체육 희망포럼 공동대표진은 "생활체육동호인, 엘리트 선수, 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자, 장애인 전문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오는 8월중 전국 체육인들을 초청해 광주체육 희망포럼 창립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임성재 톱10 넘어 시즌 2승 도전

### PGA RBC 헤리티지 18일 개막 세계랭킹 1~5위 모두 출전

임성재(22)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19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 출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대회다. 이번 대회도 무관중이다.  
임성재는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되기 직전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 경쟁을 벌여 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등 페덱스컵 랭킹 1위를 꺾는 상승세를 탔다.  
석 달 만에 재개된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서도 거뜬히 톱10에 이름을 올린 임성재는 미뤄졌던 시즌 두 번째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확인했다.  
PGA투어닷컴은 RBC 헤리티지 우승 후보 15명 명단에 임성재의 이름을 빼놓지 않았고 "석 달 동안 공백에도 경기력 저하가 전혀 없었다.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 우승자 다니엘 버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승을 다룰 경쟁자들의 면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계랭킹 1~5위가 모두 출전한다.  
19살이던 2009년 딱 한 번 이 대회에 출전했던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해 해운 램(스페인), 저스틴 토머스, 브룩스 켈퍼,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빅5'가 총출동한다.  
6위 패트릭 리드(미국), 9위 웹브 심프슨(미국), 10위 잰더 쇼플리(미국)까지 합치면 세계랭킹 10위 이내 8명이 출전하는 호화판 라인업이다.  
괴력의 장타자로 거듭난 브라이언 디셔보(미국)와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과 준우승을 나누어 가진 다니엘 버거와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의 리턴매치도 예상된다.  
작년 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경쟁 끝에 공동 10위에 올라 견제를 과시했던 최경주(60)도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학을 마치고 PGA투어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강성훈(33), 안병훈(29), 이경훈(29), 김시우(25)도 출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판정중(대만)은 2008년 부 위클리(미국) 이후 12년 만의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연합뉴스



석 달 만에 재개된 PGA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서 톱10에 이름 올린 임성재. /연합뉴스

## 세계 바둑대회 줄줄이 개막 춘란배·응씨배 등 온라인 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각종 세계 바둑대회가 하반기 온라인을 통해 바둑 팬들을 만난다.  
한국기원은 15일 제13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가 다음 달 하순 개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개막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춘란배는 7월 29일 24강전, 31일 16강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은 지난 대회 우승자 박정환 9단과 준우승자 박영훈 9단 등 7명이 출전한다.  
4년에 한 번씩 열려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는 9월에 개막한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응씨배는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중국에서 대유행하자 일찌감치 연기됐다.  
역시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응씨배는 9월 8일 28강전, 9월 16강전 11일 8강전이 차례로 열린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인 2020 1004점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와 제7회 국수산맥 바둑대회도 하반기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내선발전을 마친 1004점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는 9월 18~22일, 국수산맥 바둑대회는 11월 13~16일로 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대국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다.  
세계 대회는 아니지만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바둑리그는 7월 6일 개막전이 확정됐다.  
중국 기사 간의 대국은 대면 대결로 진행되고, 외국 기사와의 대국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일본이 주최하는 2020 월드바둑챔피언십과 제7회 글로벌스배 세계바둑 U-20, 센코컵 월드바둑여류최강전도 하반기에 개최된다. 월드바둑챔피언십과 글로벌스배는 8월에 열리고 센코컵은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결백
2관	은위드: 단 하루의 기적
3관	침입자
4관	은위드: 단 하루의 기적
5관	결백
9관	결백
7관 씨네커튼	은위드: 단 하루의 기적, 에어로너츠 레옹 디 오리지널
8관 씨네커튼	위대한 쇼맨, 침입자, 언더워터, 도미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방탄소년단**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